

물가 '고공행진' 여전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12.3% ... 전달보다는 0.2%p 하락

고유가 반영 공산품값 17% 가장 많이 올라

생산자물가가 1년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개월전에 비해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총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12.3%로 전월의 12.5%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지는데 머물렀다.

총지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4월 7.6%, 5월 9.0%, 6월 10.5% 등이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8월에 마이너스로 작년 8월(-0.1%)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5월 1.9%, 6월 1.6%, 7월 1.9% 등이었다.

윤재환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국제석유류의 가격이 내렸으나 1년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자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그러나 전월에 비해 감소세로 돌아

섰다던 것은 주목된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을 보면, 농림수산물값이 출하감소 등의 영향으로 5.8% 뛰여 전월의 1.0%에 비해 높아졌다. 공산품은 17.1%, 전력·수도·가스는 4.6%, 서비스는 3.4%로 전월과 차이가 없다.

전월비로는 공산품이 -0.8%의 감소세로 돌아섰고 농림수산품은 4.9%, 전력·수도·가스는 0.2%, 서비스는 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에서 배추가 90.7% 급등했고 호박 62.1%, 상추 69.0%, 무 40.1% 등의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비가 많이 오면서 출하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돼지고기 10.0%, 오리고기 9.7%, 가지미 18.1%, 갈치 22.1%, 물고기 20.7%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제품에서는 경유가 전월보다 11.2% 떨어졌고 등유 12.9%, 휘발유 8.9%, 나프타 11.0% 등의 비율로 떨어졌다. 금속제품으로는 알루미늄 5.2%, 은 17.5%, 금 8.1% 등의 비율로 각각 내렸다.

서비스 분야를 보면, 국내항공여객료가 4.5% 올랐고 항공화물운임은 4.8%, 건설중장비임대료는 3.0% 각각 상승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대한민국 명품들 다 모였네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장인작품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박람회는 11일까지 계속된다.

펀드 투자자 '울고'

"확정수익·고정금리 지급" 허위광고 피해 판매사 상대 내달 중 손배소 제기 움직임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업계계 긴장하고 있다.

9일 증권·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가 투자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파생상품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손실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한누리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해당 펀드의 광고선전물에 '확정수익 또는 고정금리 지급' 등의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나 허위광고 등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모아 이르면 다음달 중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해당 파생상품 가입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의 과장 광고에 속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만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에 고무돼 조만간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펀드 판매사 '웃고'

은행들 상반기 수수료 수입 8천억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의 침체 속에서 은행들이 펀드를 팔아 8천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3조 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억원 늘어났으며 이중 각종 비용을 뺀 이익은 2조3천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펀드 판매수수료 수입은 8천억원,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수입은 4천억원으로 1천억원씩 증가해 원화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1%, 10.9%에 달했다.

금융권의 수익증권 판매잔액 가운데 은행 비중이 작년 6월 말 38.4%에서 올해 6월 말 42.6%로 커지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늘어났다.

외환거래 관련 수수료 수입은 5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은 2천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일용직도 유가환급금 받는다

내달부터 지방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2만원 면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소득 지급명세서를 갖춘 일용노동자도 급여수준에 따라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면제는 당초보다 1개월 가량 늦어진 10월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우선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 대상 및 규모는 당초 1천380만명, 3조1천400억원에서 1천764만명, 3조4천9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제성이 현 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급여 80만원을 1개월

로로 간주하기로 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가환급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근로자는 올해 11월에, 자영업자는 12월에 최대 24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의 경우 올해 하반기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분은 12월에, 내년 상반기분은 6월에 각각 지급이 예정됐었다.

개정안은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업종 제한도 삭제,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천원), 농특세(3천600원), 교육세(3천600원)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공포일을 감안해 9월이 아닌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작년 유류세 25조원

국민 1인당 53만원씩 부담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 규모가 무려 25조5천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 53만원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경유·등유·LPG·LNG 등 각종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25조5천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세(161조4천591억 원) 대비 15.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류세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천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25조5천억원 등으로 최고 5년간 기를 관련 세금으로만 110조원이 넘게 걷혔다.

이를 지난해 추계인구(4천846만명) 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유류세는 53만원, 추계가구(1천641만7천가구)수로 나눌 경우 가구당 유류세는 155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유류세를 세부별로 살펴보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 국세의 7.22%인 11조6천541억원이었고, 등유·LPG·LN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유류분)가 1.34%인 2조1천626억원이었다.

이들 세금을 추가해 부과되는 교육세(유류분)가 2조565억원으로 국제 수입의 1.27%를 차지했고, 주행세는 3조5천953억원(2.23%)이었다. 부가가치세(유류분)는 전체 국세의 3.72%인 6조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추가로 관세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수입관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도 넓은 의미에서 유류세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관매부담금은 2006년 회계연도에만 1조7천1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유류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찬반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도 '돈맥경화'

자금사정 실시지수 '85' 2003년 이후 최저 영업현금 흐름 크게 하락 ... 수익성 나빠져

대기업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것으로 조사돼 자금난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기업도 자금난 심각=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천16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8월 기업경기'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의 자금사정 실시지수(BSI)는 지난 8월에 85로 전월의 89에 비해 4포인트 떨어져 관련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대기업의 자금사정 BSI는 지난 5월 96에서 6월·7월 각 89, 8월 85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 지수는 8월 기준으로 2003년 91, 2004년 93, 2005년·2006년 각 96, 2007년 103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중공업의 자금사정 BSI가 지난 8월에 80으로 2003년 8월의 79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지난 1월 90에서 3월과 5월 각 84로 떨어졌고 6월에는 82로 내려왔다. 자동차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소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케이엠씨	KMCC 촬영기사/포토샵/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971-0898
신성자동차	영업팀 및 정비팀/정비,핀금,도장,리셀션,어드바이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376-2566
대한생명보험	[광주/전남]생명보험 컨설턴트 신입 및 경력직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5	062-383-0494
순천농업협동조합	문화센터 운영실무사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5	061-720-8222
씨에이치솔루션	(주)5월/고정급152만) SK텔레콤 CRM 송정리센터 멀티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15	02-456-9799
경일물산	양식조리사 및 바리스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11-702-2419
다시	프린터 설치 및 A/S/지사 광주(2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2-857-4438
(주)해인	(주)해인 중부호남지사 광주사무소 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17	02-3498-4522
(주)화모터스	자동차 하체점검 정비사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9/17	062-672-2744
대화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교사(사무자동화/월드자이브/CAD MAX)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17	062-369-0006
함소아의원(광주/전남)	한의원 함소아 실장	고졸/경력3년	2000~2200	09/18	062-351-1075
우리종합건설	경리팀 여직원 및 부서장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9	062-352-2700
(주)파루	인쇄전자연구사 R&D 신입 및 경력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9	061-755-511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대우조선해양 인수 예비 입찰

GS·포스코 등 4개 회사 참여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포스코와 GS, 현대중공업, 한화계 모두 참가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캠퍼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50.4%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4개 후보 기업들은 이날 오후 3시 전에 산업은행에 예비입찰서를 냈다. 인수금액이 6조~8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주식가치에 적절한 프리미엄을 얹었다는 답변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산업은행은 이들이 예비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인수금액과 컨소시엄 구성 내역, 경영계획 등을 검토해 인수 후보들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오는 12일 본 입찰 적격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연합뉴스

OEM 방식 수입 식품

유통기한 '제멋대로'

소비자원, 과자 등 153개 제품 조사

국내 식품업체가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된 뒤 수입해 파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12개 식품 수입·판매업체가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 국내에서 파는 당면·곡류 등 건면류 17개, 과자류 9개, 레토르트 식품(알루미늄 봉지에 담아 살균한 음식) 6개, 분유 제품 27개, 통조림 식품 79개 등 1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근거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이 6~12개월로 비교적 짧았고 참치·육수·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 24~60개월로 길었다. 그러나 153개 제품 중 130개(84.9%)의 경우 수입·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설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23개 제품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한 뒤 유통기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뒤 제조사에 연락해 관련서류를 받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연합뉴스